

 농림축산식품부	<h1>설명자료</h1>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7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원예산업과 과 장 서준한(044-201-2231), 사무관 손경문(2234) / 제공일: 7월 24일(총 2매)		



농업관측과 인공지능모형 예측시스템 개발 병행 추진 (이투데이 7.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정부는 정책수립 및 농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농업통계 및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
 -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정확한 수급예측 정보 제공을 위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인공지능형 예측모형 개발도 병행 추진 중
 - 현재 시스템 개발 초기단계이며, 향후 빅데이터 축적, 충분한 자기학습 기간을 거쳐 보다 정교한 예측 모형 구축 예정
- 7월 24일 이투데이 “한 달 앞 양과값도 예측 못하는 11억짜리 인공지능”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- 정부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개발한 농산물 가격 예측 인공지능의 부정확한 가격 예측이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
- 새롭게 자체시스템을 개발계획이나 적게 잡아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정확한 현재의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정부는 정책수립 및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와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
 -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정확한 농산물 수급예측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·AI(인공지능)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인공지능형 예측모형 개발도 병행 추진* 중에 있음
 - * 1단계('14. 6. ~ '17. 6.) : 5대 채소류의 생산·유통·소비 정보를 수집·분석하고 데이터 축적, 예측 알고리즘을 통한 수급정보 생성모델 개발
 - * 2단계('18. 9 ~ '23. 12) : 분산된 정보를 연계·표준화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, 인공지능형 예측모형 고도화(딥러닝 학습기법 등) 추진
- 현 인공지능 모형 예측시스템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인공지능 모형의 특성상 충분한 정보축적과 학습에 상당한 기간 소요
 - 현재는 1단계에서 개발한 예측모형을 생산·유통 등 수급 관련 데이터와 연동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습기간을 거쳐 보완·개선하는 단계임
 -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부의 수급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, 정부의 수급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
- 정부는 영농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통계청과 정보공유 강화, 농업관측 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,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망을 결합한 과학적 예측정보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
 - 향후 빅데이터 축적, 충분한 학습기간을 거쳐 2차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경에는 현재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봄